

이렇게 들었다

수행의 자세

"깊은 샘물이 맑게 트인 것처럼"

황량한 도시를 떠나 깊은 산사를 찾은 불자들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휘두 삼아 가벼운 마음을 즐기고 있다. 무늬, 무상, 무아의 세계를 찾아가는 짧지만 긴 여행. 여름수련회가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다.

최근 들어 매년 여름이면 펼쳐지는 여름수련회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며 존재이유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1년에 꼭 한번은 거처가는 자기탐구의 시간이다. 올 여름에도 여름수련회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찾아갈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에 임하는 동안 명심해야 할 수행의 자세를 경전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저 배사공은 배를 손보고 활자는 뿔을 다루며 교묘한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몸을 다룬다. 마치 저 깊은 샘물이 속속들이 맑게 트인 것처럼 맑은 마음 그와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하나니. (출요경 수품)

■ 지혜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수보리야, 구도자는 집지자의 지혜에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온갖 대상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들의 본성(本性)이 무엇인가를 관찰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가르친다. 그것은 그가 무소득(無所得)의 마음에 의한 바이다. 이를 구도자의 지혜의 완성이라고 일컫는다. (반야경)

■ 나는 차라리 지(智)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지가 없는 자로서 살지는 않겠다. 이것은 마치 의용인(義勇人)이 차라리 승리를 결단하기 위하여 죽을지언정 겁약자의 삶을 구하여 남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 자는 되지 않는 것과 같다.

■ 평상시의 마음도 특별한 경우를 만나면 흐트러진다. 특별한 경우에도 평상시의 마음을 가지도록 배워야 한다. (중야합경)

■ 배우는 이의 경지는 여래의 경지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배우는 이의 경지는 다섯 가지 달개를 끊고 머무르는 것이고, 여래의 경지는 다섯가지 달개를 끊고 다시는 자라나지 않게 뿌리까지 끊는 것이다. (가마경)

■ 거친 선정을 닦는 것은 거치른 말(馬)이 할일과 하지 않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곡식만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탐욕의 번뇌에 따라 선정을 구한다. (집야합경)

■ 홀로 앉아 법도를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늘 이치와 법도를 지켜서 행동하며 살아 가는데 있어 우환을 특별히 알아 무소의 꼴처럼 혼자서 가라. (경집)

■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 될 수 없다.

■ 함께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무심한 가운데 행동하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유마경)

■ 출가자들은 탐욕을 버리고 약한 법을 여의며 각(覺)과 관(觀)으로써 육계의 악을 떠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初禪)을 얻는다. (중야합경)

■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니, 도를 행하는 데는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법구경)

■ 항상 자기 몸 제어하기를 달라는 말 붙잡듯 하고, 스스로 자기를 잘 단속하여 괴로움의 근본 끊기를 생각하라. (출요경 화품)

■ 집에 있거나 집을 나와 도를 배우거나 바른 행을 행하면, 나는 그를 칭찬할 것이다. 바른 행을 행하는 자라면 어디에 있더라도 법다움을 알기 때문이다. (중야합경)

김동일 기독교 장로님께

목.소.리



송위지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동일 기독교 장로님께
지난 수년 동안 우리 한국인은 일부 독실한 장로님들 덕분에 아주 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한 분은 진짜 목실한 기독교인인데 장로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그에게 나라를 맡겼더니 결국은 나라를 부도내고 자탄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 분은 보람회사를 운영하는 그 장로님은 무슨 선교회의 후원회장을 자벌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교인인데 돈을 몰래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되어서 지내던중 아내를 시켜 소위 고급웃 로비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있어요. 귀하와 같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하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어떤 이는 백화점을 운영했는데, 위에도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당연한 상식을 무시하고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다가 그만 백화점이 무너져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참사를 저지르고 지금은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
나는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같은 분은 분명 제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라마타경'이라는, 불자들조차 생소한 경전을 인용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하시야소래(何時耶蘇來) 오도무유등(吾道無曲證)'을 '언제라도 야소(예수)가 이땅에 오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기쁨이 없는 등불'이라고, 아무리 제멋대로 번역했다지만 기독교인 입맛에 맞게 아인슈타인적으로 해석한 그런 글을 그대로 역사깊은 <신앙계>라는 잡지에 버젓이 기고했다니 놀라지만 합니다.

지난 백년동안 장로님이 믿는 종교는 부자 나라들의 후원에 힘입어 우리 나라에서 아주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나가시는 교회가 양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장로님이 믿는 종교가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성장했는데도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교회가 사람보다는 진리를 찾아 절로 가는 사람이 여전한 많은 것을 보고는 스스로 깊은 교회의 한계를 절감하신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그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얼토당토않은 글을 쓰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냈지요. 그것이 공극에 가서는 예수님을 할피는 아주 멋진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장로님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의 향스러운 제자인 '베드로 성인'을 베드가 참대니까 '참대로'라고 불러도 된다는 말입니다. 부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처럼 어리석은 이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도저히 구원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다.

내 이제부터 당신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용기를 가지고 참진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인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전리안: aem ·하이텔: 3473

독자 시

스님에게

"마하반야바라밀"
대도에 들어선 임
무명을 밝히는 임
생명의 실상
우주의 진리
외로운 구도의 길
부처님 진리의 길
평생을 다 바치고
평생을 다 바치고
홀로서 가는 임
임에서 가는 길
삼백을 울리웁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세상 낙(樂) 다 버리고
대도에 들어선 그 날 그 서연,
봄 언덕에 수액을 떨어뜨리는 나무처럼
저 언덕, 피안을 향해 정진 정진의 스님,
동진시절 부모됨을 떠나
파노라처럼 스처가는 속세의 인연
대추나무에 연결리듯 얽히고 설친 연줄
특독 끊어버리고
구도의 등불 되시사
부처님 법문 드날리사
향기처럼 바람따라
산천에 드날리시네
법계에 드날리시네
정성수 (시인·서울구치소 불심회)

종교채널 의무전송해야

정부 여당이 이번 국회에 상정키로 한 통합방송법에 케이블TV 종교채널을 의무 전송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케이블TV업체의 새 활로를 모색하고자 4~5개의 채널을 묶어 편성하는 채널리어널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와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는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종교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의해서 선택되어 한다면 거센 상업 방송의 물결에 종교방송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또 이번 조치는 국가가 앞장서서 종교가 갖는 순기능을 부정하는 셈

이 되기도 한다.
법 개정 관련자들은 신중히 문제를 다시 검토해 상업적인 편향된 판단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정서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채널의 의무 전송을 관찰시켜야 한다. 김주홍(서울시 성동구 행정동)

원불교 종단협 가입 찬성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종단의 이익과 관련시켜 논의되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의 집단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소진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 추진은 화합과 화해 공존의 모델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불교쪽에서는 '원불교가 불교'는 불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창오(서울 흑석1동)

고승행장 신문에 소개

얼마전 20세기를 대표하는 근세고승 여덟분의 기념예담세트를 집으로 보냈다. 모시고 보니 너무나 뜻깊었다. 그러나 근세불교계에 유명한 고승이라는 것만 알지 그 스님들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너무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스님들의 행장을 현대불교신문에서 자세히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근세불교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신문에서 스님의 경력이나 수행에 얽힌 일화 등을 알려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여름휴가철인데 고승들이 머무르셨던 사찰을 가는 길과 함께 그 사찰들과 어떠한 인연을 맺으셨는지 소개해 준다면 더 많은 불자들이 스님의 행적을 따르며 불법을 되새기는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태호(경기도 성남시)

백혈병 어린이에 치료비를...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6월 25일 인천 길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중인 박종혁군(서울 금천구 인천초등학교 1학년)을 도와주세요. 종혁이는 얼마전 부모의 사업실패로 부모와 헤어져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2차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데 어린이이에도 잘 참고 견디고 있지만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종혁이는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아는지 죽으면 할머니와 같이 손잡고 다녔던 산길에 자기를 물어달라고 해 주위의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어린 생명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종혁이를 살려 주십시오. 저는 종혁이를 잘 아는 이웃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도움을 청합니다. 연락처는 인천 길병원 1023호(032-460-3114)입니다. 부디 불자여러분께서 자비심을 내시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경기도 안양시 석수 3동)

21세기를 예언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문화라는 단어에 무게를 실는데 주저함이 없다. 유민재단의 초창으로 12일 서을 프레젠테이션에서 '세계화와 문화'를 주제로 강연한 세계적 석학 새뮤얼 헌팅턴교수(미 하버드대)도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각 지역 문화의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21세기의 정치·경제·사회는 문화의 틀 속에서 조정·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가 되리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있지만 한국에서라도 베스트셀러인 <문명의 충돌>을 쓴 석학의 말이기에 한층 무게를 담고 다가온다.

그러나 그는 "한국경제 지표가 상승할 때, 기독교 교세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데 주목한다"고 말했다.

헌팅턴 박사의 이같은 논리가 한국의 역사와 민족의 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에 대해 잘 모르고 한 소리라고 치지도 못할 수만은 없다고 본

다. 1천6백년 역사를 지닌 불교가 대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고 또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힘' 키우자

헌팅턴교수는 '잃은 문화'를 평가할 때 단순히 '돈'만을 그 척도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가설은 '시민운동' '민주화' '경제발전' 등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gobaou@buddhopia.com)

전통식품지정업체

0598-945-0075 ~ 7

삼부농산

경남 거창군 용암면 신촌리

새로운차, 꼭 드셔야 할 차
귀한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황토삼백초

황토삼백초와 함께 몸도, 마음도 맑아진다.
- 황토삼백초차,신농차 -

신비의 약용식품 황토삼백초

여로부터 불초장목, 관아세진, 동의보감 등에 놀라운 효능이 기재된 귀귀식물로 특등지역에서만 자생되어 일반인에게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소중한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이제 손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삼부농산 김형서 선생이 거창의 황토지역 원에서 무농약, 유기농으로 대량재배, 기능성 고급차로 개발하였습니다.

몸과 정신의 기를 맑게 정화시켜주는 황토삼백초차, 신농차

- 강력한 이노이드함량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해독작용, · 온몸이 진화되어 면역력 증진 작용
- 피를 맑게하고, 맑은 피를 온몸에 잘 순환시켜주어 얼굴과 몸통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
- 위장기능을 증진시켜 속을 편하게 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작용

이런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 자를 자주 드시는 분 · 매사에 위약이 없거나 늘신 피곤 하시는 분
- 소화기 안되고 속이 거북하거나 편지 않은 분
- 머리가 개운치 않고 현기 두는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 고열 하시는 분 · 변비(속변)에 시달리시는 분 · 식수공해가 알려지시는 분 · 몸이 계속속으로 안좋은 분

특징

- 비배도 증식 및 기력 증진과 차에 관여하는 콜린과 페닐에타노이드 배당체가 들어 있습니다.
- 장기능을 향상하고 해주는 천연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피를 맑게하고 마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 순환을 돕고 손상된 혈관 치유에 도움을 주고, 과산화지질 조직세포 생성 억제로 항암, 노화 방지에 영향을 미치고, 해독과 이노이드함은 좋은 피부분해 물질과 수분생 탄닌, 유전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 화가배달인 개토마늘과 천연비타민인 아스코르빈산, 글루타민산, 트레오닌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법

- 온가량이 입상차나 송백차로 드시거나 손잡질대용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 참고문헌 · 조규형 박사 "삼백초건강법"

불교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전국 불교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공고

불국정토 구현을 위한 재가 불교지도자들의 노력은 많지만, 오늘의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와 전국불교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하계수련대회를 함께 공고하오니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8월 10일(화) 15:00 ~ 11일(수) 11:00 (1박2일)
● 장 소 : 대전 유스호텔 (전화 042-822-9591)
● 참가비 : 삼만원(₩30,000) 참가비는 미리 접수해야 함.
● 참가대상 : - 일반신행단체 및 직능단체 지도자
- 본회 시도·시군지부 임원 및 회원
- 일반포교사 및 본회출신 전법사
- 기타 희망자
● 접수처 : 사무국 TEL 732-7272~4 FAX732-7275

●제1부 세미나

- ◎ 주제: 불교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 ◎ 발표자: 정병준 교수(동국대학교 전 부총장)
- ◎ 발표자: 신도운동과 자율
- ◎ 발표자: 신도운동과 조직
- ◎ 발표자: 신도운동과 포교

●제2부 대표총회

- ◎ 특 강: 불교 교양대학을 통한 포교활동의 실제 · 발표자: 이하우 학장(부산불교교육대학)
- ◎ 토론방법: 세미나 주제에 의한 참가자 전원 5분 발언 대토론.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회장 선진규